



보도시점 2026. 4. 24.(금) 13:00 배포 2026. 4. 24.(금) 13:00

##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 포럼」 추진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첫 권역별 포럼 개시
- 현장 기반 정책 설계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전국 단위 확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와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의 구조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별 포럼」을 전국 단위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 주체 간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향후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포럼은 권역별 3회와 전국단위 1회로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제1권역(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제2권역(경남,경북), 제3권역(충남,충북,경기,강원)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후, 전국 단위 포럼을 통해 권역별 논의 결과를 종합·정리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별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진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오는 4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1권역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1권역 포럼은 전남, 전북, 제주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와 관

계부처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단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 체감형 정책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주제 및 사례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주체가 참여하여 중앙-지방 협력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정책 실행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은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주체」라고 밝히며, 「성평등 정책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정책 구조로 정착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정책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권역별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는 향후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특위는 제1권역을 시작으로 제2·3권역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전국 단위 포럼을 통해 논의 결과를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진호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김선우 (02-6260-1228)